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3월 30일

ISSN 1976-0507 Vol. 1 No. 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현황과 신(新)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신 현 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shin@kiep.go.kr, Tel: 3460-1053)

- ▣ 중앙아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親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 ▣ 강력한 국가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소비에트식 계획경제를 이끌었던 독재자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2006년 말 사망하고, 2007년 2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대통령에 취임함.
-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親니야조프 정치세력의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니야조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정책도 당분간 親러시아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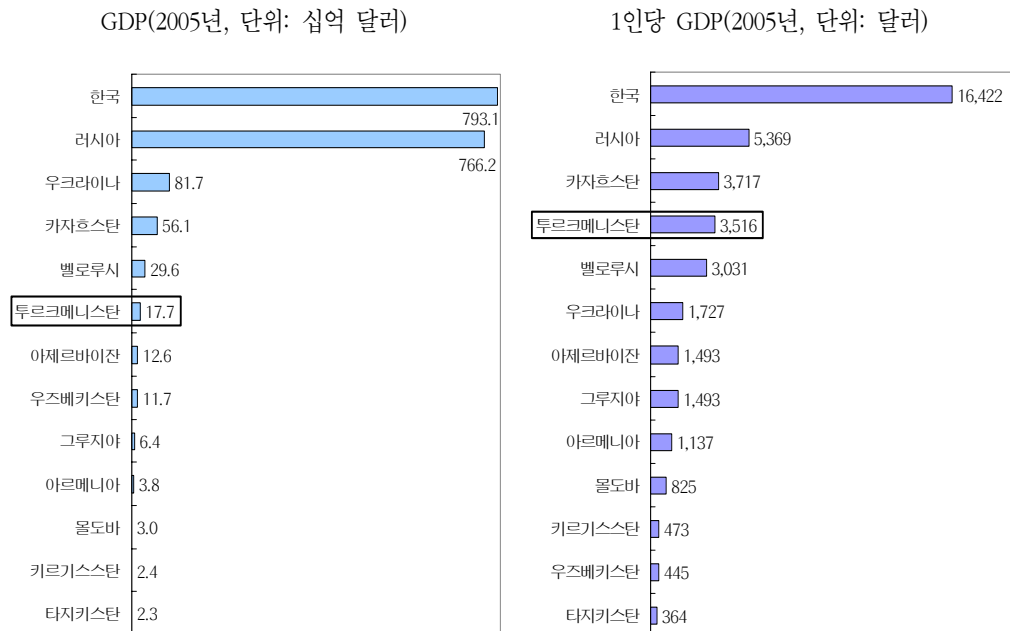
1. 경제구조와 특징

■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들 중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 2005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900bcm(십억 입방미터)로 세계 확인매장량의 1.6%, 추정매장량은 3만bcm으로 세계 추정매장량의 10%를 차지함.

- 2001년 기준¹⁾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각각 57%와 26%로 합계 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전체 수출소득의 90% 이상을 석유·천연가스 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음.
-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러시아/CIS 국가들과 이란이며, 최근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루트의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1.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규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에 접근하기 어려워 최근 통계를 반영하지는 못하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됨.

표 1.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동향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천연가스	생산량(bcm)	49.9	55.1	54.6	58.8
	증가율(전년대비, %)	4.3	10.4	-0.9	7.7
석유	생산량(천 b/d)	182	202	193	192
	증가율(전년대비, %)	12.2	11.0	-4.5	-0.5

자료: BP(200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체제 유지

CI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체제전환시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어 온 투르크메니스탄은 1999년부터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발전전략인 ‘2000~10년 사회경제 전환전략(Strategic for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2010)’²⁾을 추진하고 있음.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임.
-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소유이며, 전력, 가스, 수도 등 사회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음.
- 2003~05년 평균 GDP 대비 무역비중은 19.0%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낮은 경제개방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 루트가 CIS 주변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CIS 역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음.
-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수출시장이 주변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2004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체 수출 중 CIS 역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CIS 최고인 41.7%이며, CIS 역내 수입도 전체 수입의 36.4%를 기록함.

2) 2003년에는 본 전략을 수정·보완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정치·문화 발전전략 2020 (Strategy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r the Period up to 2020)’을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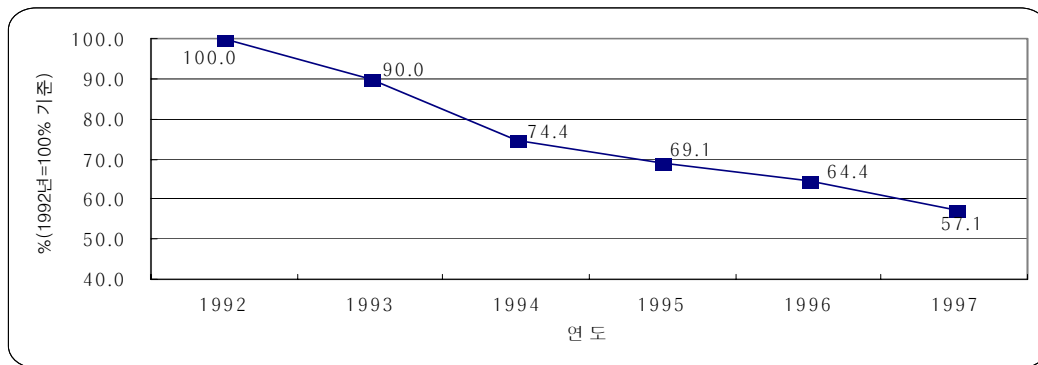
2. 경제의 침체와 회복과정

가. 체제전환 초기(1992~97년)의 경제침체

■ 공업과 농업의 생산량 급감, 1997년 GDP는 1992년 수준의 57.1% 기록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비롯한 공업과 농업의 생산량은 1990~97년 -17%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1997년에 공업과 농업 생산량이 각각 -29.33%, -24%로 급락함.

그림 2.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 초기 GDP 수준 동향(1992~97년)



주: 자국 통화(Manat) 불변가격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경제침체의 최대 원인은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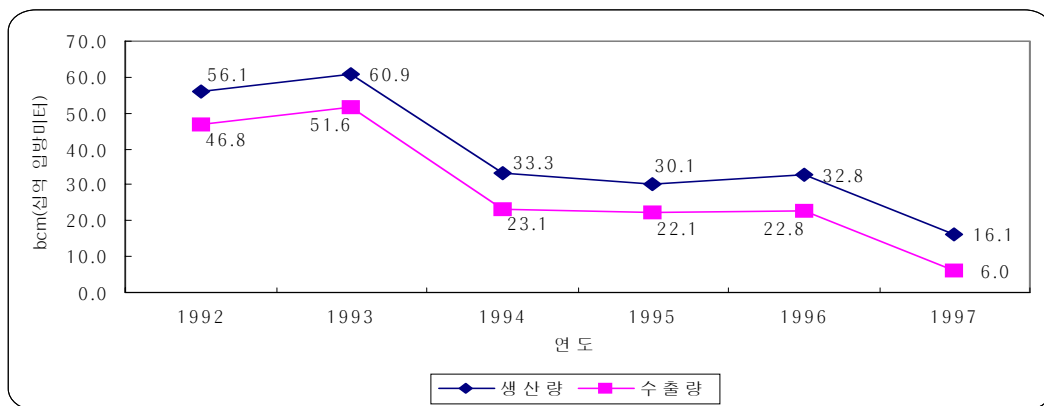
천연가스 생산량은 1992년 56.1bcm에서 1997년 16.1bcm으로 약 1/3로, 수출량은 1992년 46.8bcm에서 1997년 6.0bcm으로 무려 1/7로 감소함.

-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연가스 생산시설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되었고, 수출 루트는 구소련 가스관이 연결된 CIS 주변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우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
- 1996년 천연가스 총수출액 17억 달러 중 CIS로의 수출액이 11억 4,000만 달러를 차지했으며, CIS에 대한 수출 중 러시아로의 수출액이 10억 5,500만 달러로 92.4%에 달함.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러시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

가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천연가스 수입대금 결제를 유예하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음.

- 1997년 이전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들이 천연가스 수입대금을 경화가 아닌 물품으로 결제하는 바터 거래를 강요하면서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옴.
- 1997년 천연가스 수출액 2억 7,370만 달러 중 실제 결제된 금액은 9.9%인 2,700만 달러에 불과함.

그림 3.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 초기 천연가스 생산량 및 수출량 동향



자료: BP(200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나. 1998년 이후의 경제회복

■ 1999~2004년의 5년간 매년 15~20%의 성장률 기록

1998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률은 2001년 역대 최고인 20.4%를 기록하는 등 매년 15~20%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회복은 대내적으로는 수입대체산업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확대, 대외적으로는 천연가스 수출환경의 개선에 기인함.

■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추진

정부는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천연가스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의 확대를 통한 수입대체산업화를 강화함.

- 경제침체가 최고조에 달한 1997년 이전인 199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투자는 공업에 40.0%가 집중되었으며, 국내에 무료로 공급되는 전력 생산과 최대 산업인 천연가스 생산 부문도 정부투자의 11.0%와 28.0%를 차지함.
- 1996~97년을 거치면서 정부투자는 다양한 국내외적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석유 생산, 정유, 경공업 등에 집중되었음.
- 1995년 8.0%에 불과했던 석유 생산 부문의 정부투자는 다국적 기업과의 생산물 분배조약(PSA) 체결을 통한 신규 유전 개발에 집중되면서 1997년 15.0%까지 늘어남.
-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적인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산물인 정유 부문은 외부의 석유 수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집중 육성되어, 1995년 2.0%에 불과하던 정부투자 비중이 1998년 26.0%로 급증함.
- 경공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1995년 7.0%에서 1996년 25.0%, 1998년 17.8% 등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농업 부문 최대 작물인 면화의 외부 수요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섬유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임.

표 2. 투르크메니스탄의 부문별 정부투자 비중(1995~98년)(단위: %)

부문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공업	40.0	38.0	53.0	51.0
전력생산	11.0	3.0	10.0	7.0
석유생산	8.0	11.0	15.0	14.0
정유	2.0	8.8	25.5	26.0
천연가스생산	28.0	21.0	17.0	15.0
화학	0.0	5.6	0.5	0.6
경공업	7.0	25.0	19.0	17.8
농업	11.0	4.6	3.4	12.8

자료: Alexandre Repkine(2004), "Turkmenistan: Economic Autocracy and Recent Growth,"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Sources of Long Term Growth*.

■ 천연가스의 수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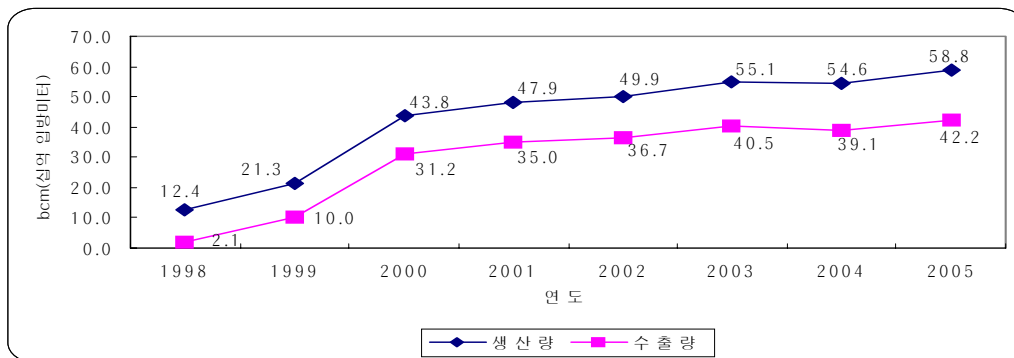
1998년 이후 천연가스의 수출환경이 정부의 추가적인 가스관 건설과 장기 수출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호전되면서 생산량과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함.

- 천연가스 수출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의 안정성 ·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

해 중국, 유럽 등지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중국과 3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부터 매년 30.0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예정임.
 -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 잇는 TAP 가스관³⁾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중국에 연간 약 30.0bcm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함.⁴⁾
 -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크, 이란 등의 천연가스를 터키를 경유해 남동부 유럽까지 공급하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이를 자국까지 연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1999년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짐.
- 2003년 러시아와 25년의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전체 생산량의 70% 수준인 42.0bcm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수출함.

그림 4. 1998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생산량 및 수출량 동향



자료: BP(200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 3) TAP 가스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기 위해서는 2가지 해결과제가 남아 있음. 우선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상황이 악화되면서 아프가니스탄 부분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은 거대한 인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가스관을 인도까지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인도측에 타진했으나, 아직 인도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임.
- 4) 현재 건설 계획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은 총연장 약 7,000km로 투르크메니스탄 아무다리야(Amudarya)강에서 출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 광둥성(Guangdong)까지 연결되며, 양국이 건설에 합의한 뒤 2006년 9월 중국정부가 승인하면서 최종 결정되었음(Press-Club Kazakhstan, 2006. 10. 2).

그림 5.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즈 지역 전도



자료: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http://www.gl.iit.edu/govdocs/maps/maps.htm>)

3.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의 특징, 성과 및 한계

가. 특징

■ 핵심산업의 국유화

정부는 석유·천연가스 산업, 농업, 교통 및 통신업 등 핵심산업을 거의 100% 국유화하고, 국영기업이 벌어들인 외화 및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수입 대체산업화 및 사회지출에 사용하고 있음.

-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예를 들면, 총 5개의 국영기업이 석유·천연가스의 개발 및 생산에서 수출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담당하고 있음.

표 3. 투르크메니스탄 5대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국영기업 현황

국영기업명	기능
투르크멘네프테가스(Turkmenneftegaz)	국내 판매 및 수출
투르크멘오일(Turkmenoil)	석유 생산
투르크멘가스(Turkmengaz)	천연가스 생산
투르크멘네프테가즈스트로이(Turkmenneftegazstroï)	석유·천연가스 부문 건설
투르크멘게올로기아(Turkmengeologia)	광구 탐사 및 개발

자료: Alexandre Repkine(2004), "Turkmenistan: Economic Autocracy and Recent Growth,"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Sources of Long Term Growth.

표 4.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운영자금 현황

자금명	재원	사용처
외환보유자금(FERF)	전 부문 수출소득 중 외화의 50%	주요 국가 프로젝트
석유가스개발자금(OGDF)	석유·천연가스 수출소득 중 일부	광구 탐사 및 개발, 마케팅
농업개발자금(ADF)	면화 수출소득의 일부	면화 및 곡물 생산
교통통신자금(TCF)	교통·통신기업 소득의 일부	유관 프로젝트
보건개발프로젝트(HDF)	공식 임금의 4%	의약품 및 치과진료 보조

자료: EIU(2006), *Country Profile: Turkmenistan*.

■ 사유화가 미진하여 민간부문이 취약

사유화는 대부분의 중기업·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실적이 매우 미진하며, 이로 인해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1999년 6월까지 사유화된 기업 2,000개 중 중대기업은 85개로 전체의 4.3%에 불과했으며, 산업별로는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과 상업·요식업의 비중이 95.4%에 달했음.
- 토지의 사유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3%에 불과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5년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발표했으나, 외부에서는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임금·가격규제 및 기초재의 무상공급

정부는 국가 전반의 임금, 상품의 가격 및 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전력·수도 등 기초재를 국민들에게 무상공급하고 있음.

- 가격 및 거래는 1994년 설립된 투르크멘 상품거래소(COMEX)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양만큼 이루어짐.
- 실제로 공식 환율 기준 5,700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외 거래는 반드시 COMEX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국가 전체의 임금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민간부문의 임금은 법적으로는 회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지나 실제로는 공식 임금의 초과분에 대해 60%를 세금으로 내야 함.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외환거래는 1998년 잠시 자유화되었으나, 공식 환율과 장외 환율이 300% 이상 벌어지면서 중앙은행을 통한 경매로 제한되었음.

나. 성과 및 한계

■ 체제전환 초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

투르크메니스탄의 계획경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체제전환 초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음.

- 정부의 적절한 계획에 따른 정유산업, 면화 중심의 경공업 등 수입대체산업에의 정부투자는 1998년 이후 경제회복과 10~20%의 고성장을 이끌었음.

■ 거시경제 불안정 심화, 투자환경 및 경제자유도 악화 등의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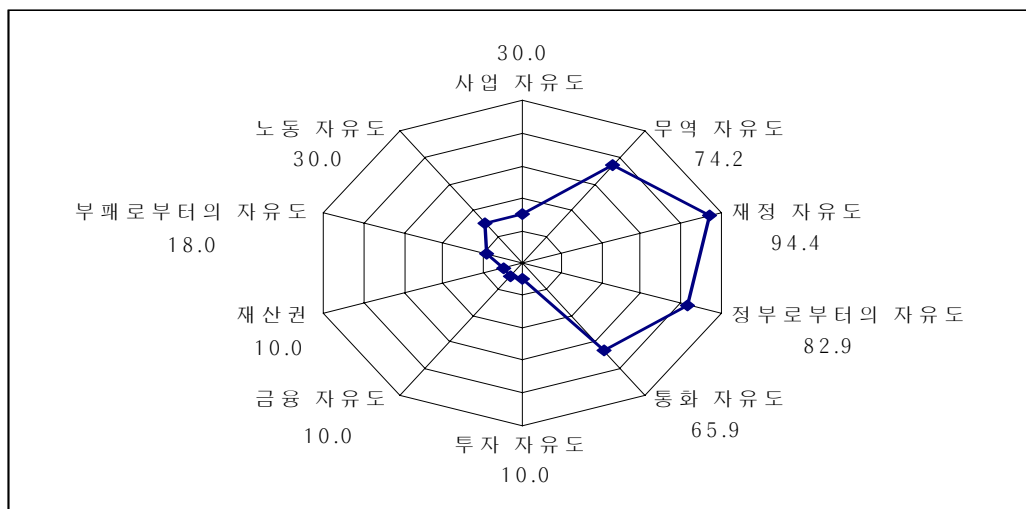
정부의 강력한 경제통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의 왜곡현상을 강화시켜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고립되어 강력한 국가통제 기반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환경 및 경제자유도가 악화되고 있음.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최근 10% 이

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암시장이 번창하면서, 마나트(Manat)貨의 對달러 공식 환율은 5,200마나트로 고정되어 있으나, 암시장 환율은 달러 당 24,000마나트를 호가하는 등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가 심화됨.
- 국가신용등급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Fitch는 2005년 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신용등급을 철회함.
- EBRD 추정 FDI 유입은 연간 300만 달러로, 연간 20억~30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총투자증가율도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2007년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100점 만점에 42.5점을 받아, CIS 30개국 중 28위의 열악한 경제자유도를 기록하였음.

그림 6. 투르크메니스탄의 세부항목별 경제자유도



주: 십각형의 중심이 최소값 0이며, 최외곽 둘레가 최대값 100임.

자료: Heritage Foundation(2007), 2007 Index of Economic Freedom.

4.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가. 니야조프 독재의 종말과 유산(遺産)

■ 2006년 12월, 니야조프 대통령 급서(急逝)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1991년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래 15년간 장기 집권하였으며, 2006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함.

- 구소련 시절 투르크멘 공산당 서기를 지낸 니야조프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9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투르크멘바시’로 개명하고, 1999년 종신대통령에 취임함.

■ 엽기적인 개인 우상화와 투르크멘 민족주의 강화

니야조프는 독재를 넘어선 엽기적인 개인 우상화로 악명이 높았으며, 서구 문물을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유한 문화를 침해하는 악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 투르크멘 민족주의를 강화함.

- 달력의 4월과 5월 명칭을 각각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1997년 자신이 심장수술을 받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자 전국에 금연령을 내림.
- 2001년 『루흐라마(*Ruhrama*, 영혼의 책)』라는 사상집을 직접 집필하고, 이를 이슬람 코란과 동격화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교과서로 채택하게 하였으며, 운전면허 시험의 90%를 여기서 출제하도록 함.
- 발레, 오페라 등의 공연을 금지하는 한편, 국민들이 서구 문물을 접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과 해외유학을 금지함.

■ 국가의 교육 및 보건 부문 붕괴

교육과 보건 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비이성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국가의 교육 및 보건 부문을 붕괴시킴.

- 2005년 12월 전국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력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지시하면서, 2006년 한해에 학교가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 폐교됨.
- 의무 중등교육을 10년에서 9년으로 줄였으며, 대학과정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2년간 민간부문에서 근로하는 제도를 의무화함.
- 2004년부터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대다수 해외 유학파들의 두뇌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12월 보건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하고, 모든 의료시설 및 인력을 수도인 아쉬하바트에 집중시키면서 지방 보건 의료체계를 붕괴시킴.

■ 실리적인 親러시아 에너지 외교 강화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구소련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니야조프 정권은 親러시아 에너지 외교로 천연가스 수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음.

- 2004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수출가격을 1,000입방미터당 4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05년 1월 1일부터 3일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음.
- 이후 2005년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수출량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의 수급에 차질을 겪게 되었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졌음.
- 이로 인해 2006년 1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분쟁에서 러시아가 3일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우크라이나는 결국 천연가스 가격의 45% 인상에 합의함.
- 니야조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분쟁이 종결된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푸틴 대통령과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

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의 부작용

전술한대로 니야조프의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정책은 1998년 이후의 경제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국내적으로는 거시경제의 불안정, 경제자유도 및 거버넌스의 악화를, 대외적으로는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고립을 가져옴.

나.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의 출범과 경제정책 전망

■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 출범

니야조프 사후 2007년 2월 11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ymukhammedo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월 14일 공식 취임하였음.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약력〉

- 1957년 수도 아쉬하바트 근교 바바라프(Babarap)에서 출생
- 치과 의사
- 1997년 보건부 장관으로 입각
- 2001년 부총리 임명
- 2006년 12월 21일 니야조프 장례위원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 2007년 2월 11일 대통령 당선
- 2007년 2월 14일 대통령 취임

-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전체 유권자의 98.65%가 투표한 가운데 89.2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음.
-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의 최측근으로, 니야조프 사후 대통령 권한대행 및 니야조프 장례위원장을 맡는 등 일찌감치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음.
-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르크메니스탄 선거 사상 최초로 복수 후보가 나선 가운데 비밀투표로 치러졌으나, 실제로는 철저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됨.

- 후보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6명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방식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베르디무하메도프를 지지하는 해프닝이 발생함.
- 정부는 해외 망명 인사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차단하는 한편, 유력한 야당 후보였던 누르베르디 누르마메도프를 가택 연금하였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직후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혁안 제시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선거유세기간에 △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근권 보장 △ 해외유학 허용 △ 개악된 교육제도의 재개편 △ 연금제도 개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혁안을 제시함.
- 정부는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수도 아쉬하바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국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함.
 - 대통령은 2월 15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고, 니야조프 정권시 개악되었던 교육제도를 재개편하였음.
 - 9년으로 줄었던 중등교육을 10년으로 다시 늘리는 한편, 일반 고등교육은 5년제, 의학 및 예술 고등교육은 6년제로 개편함.

■ 니야조프의 적자(嫡子)라는 태생적 한계로 점진적 개혁 추진 가능성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親니야조프 정치세력의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니야조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투르크멘바시(투르크멘의 아버지)였던 니야조프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투르크멘의 양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음.

- 실제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보건부 장관 및 부총리로 재직시 니야조프의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개악 정책을 주도하여 실행했을 정도로 니야조프의 최측근 인물이었음.
- 親니야조프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Halk Maslahaty)⁵⁾가 니야조프 사후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당선을 도왔기 때문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의회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의회는 올해 49세인 베르디무하메도프를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시키기 위해 입후보 가능 연령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실리적인 親러시아 에너지 정책 당분간 유지

-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를 우회하는 가스관을 건설함으로써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유럽에 직접 가스를 공급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리적인 親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아시아 국장 데이비드 메르켈(David Merkel)은 라디오 프리 유럽-라디오 리버티(RFE/RL)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하기를 바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대통령 취임 축하를 통해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대통령 당선을 “납득할 만한 승리(a convincing victory)”라고 표현하며, 양국 관계를 “실용적인 무역-경제 파트너십(Pragmatic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함.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가스 수출로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가스관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러시아 수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5) 2003년 8월,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력을 줄이고, 총 2,504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음. 의회 구성원들은 親니야조프 세력이 장악하였으며, 니야조프는 대통령직과 함께 의회의 중신의장직을 수행하였음. 의회는 니야조프 대통령 겸 의회 의장을 찬양할 목적으로 1년에 단 1회 소집되었음.